

한국 전통 자수의 색채와 배색에 관한 연구

윤 지 영* · 하 지 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oloring and the Arrangement of Colors of Korean Traditional Embroidery

Jiyoung Yun* · Ji-Soo Ha⁺

Ph. D. Candidat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6. 22 투고)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traditional and characteristic coloring through the color of Korean traditional embroidery. This research gives the chance to establish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 and presents the aesthetic standard of color images. Also, practical use of Korean traditional colors through this study provide opportunities which develop cultural merchandise in the world. <The Fascination of Korean Embroidery-collected by Y. S. Park and D. H. Huh> were chosen as the references to analyze the Korean traditional colors through gungsu: court embroidery, buddhist embroidery, everyday embroidery and clothing embroidery. Because this book published in commemoration of '20th General Conference and 21th General Assembly of ICOM' in 2004, which presented excellence of Asian culture. The color of these works were divided by 'Pantone Solid Color Chips' which organized by CMYK color system and categorized by Obangsaek.

'Gungsu' had vivid and splendid color sense which used strong and bright colors and 'buddhist embroidery' had mild and mysterious feelings which used low saturation. 'Everyday embroidery' used the red color group frequently and 'clothing embroidery' had brighter colors comparing to other embroidery groups. The 'Chung(blue)' group had diverse color tone rather than one-tone color. This means that Koreans prefer the 'Chung' and used it regularly, also this color symbolized the racial characteristics. Even though 'Whang(yellow)' was prohibited because the color for emperor, in the case of embroidery, there were a variety of yellow colors from 'gold' to pale yellow and grayish yellow.

The arrangement of colors in 'gungsu', tone on tone, complementary and bicolore coloring was used mostly which presented a strong and elegant color sense. On the other side, 'buddhist embroidery' used tonal coloring which gave gentle and noble feeling. 'Everyday embroidery' presented separation and accented coloring which was the example of common people's humor and originality. In the case of 'clothing embroidery', there was dominant lightness, separation,

corresponding author: Ji-Soo Ha, e-mail: jisooaha@snu.ac.kr

* 본 연구는 2006년도 제2단계 두뇌한국 21(BK21) 사업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tone on tone and camaieu coloring which added gorgeousness in Korean traditional clothing.

Key words: coloring(채색), arrangement of colors(배색), Korean traditional embroidery(한국 전통자수), cultural identity(문화적 정체성), Obangsaek(오방색)

I. 서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독창성을 찾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적' 전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한국적 디자인 개발이라 함은 단순히 과거 전통에서 조형적 요소를 차용하여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 속에 내재해 있는 고유한 사상과 정서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민족적 미의식을 창출해 냄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적 이미지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은 막연히 일본적이기도 하고 중국적이기도 한 혼혈문화처럼 비춰진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프랑스 문명 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의 말처럼 한국의 문화정체성은 세계 속에서 확고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세계 속 우리의 문화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양의 문화 속에서 그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문화만의 독창성의 결여는 타문화로 오인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는 우리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문화 정체성의 확립과 활용이 아직은 부족한 결과라 사료된다. 이에 우리 문화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이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 국가의 전통색과 선호색에 대한 연구는 각 국가의 독창적인 미의식을 인지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각 국가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색채는 인간의 오감 중 70%를 차지하는 시각 중에서도 사물을 인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체스킨(L. Cheskin)에 따르면, 형태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보다 정신적, 이성적이지만, 색채에 대한 반응은 감정적이라고 하였다. 색채의 경우 인상이 강렬하여 기억에 쉽게 남는다고 했으며 이에 상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색채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²⁾ 이와 같은 색채에 대한 관심은 현대 사회에서 '색채 혁명'을 가져왔고 이는 또한 '칼라 마케팅'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색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색채를 연구하고 이를 활용한 디자인과 색감의 개발은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 이미지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전통 자수의 색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색채의 전통성과 특수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한국적 문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한국적 색채를 고찰함에 있어 자수를 선택한 이유는, 여성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자수 공예작품이 다양한 색감의 유채색을 사용하여 아름답고 화려한 우리나라의 색채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수는 의생활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마음,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뽐내고 싶은 마음, 인간의 소망을 표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섞여 있는 집합체로³⁾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가장 잘 표현해 내고 있는 예술 작품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꿈과 정서가 담겨 있는 자수 작품의 색채 연구를 통해 '문화혁명' 시대인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문화적 독창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우리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한국적 색채 이미지와 미적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색 활용을 통한 문화 상품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은 세계 속에 '한국적'인 이미지를 알리고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궁수, 불교자수, 생활자수, 복식자

수의 네 가지 자수 분류군에서 관찰되는 전통색채 사용의 특성과 차이점, 선호색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각 자수 작품에 사용된 전통색의 배색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 자료로 2004년 서울세계박물관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박영숙, 허동화 소장 자수 특별전>⁴⁾에서 전시된 작품을 선택하였다. 이는 유럽과 미국 국가들이 주체가 되어 오던 대회로, ICOM⁵⁾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되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자랑한 대회였다. 이처럼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대회를 통해 전시된 자수 특별전에서는 과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이르는 궁수, 불교자수, 생활자수, 복식자수 등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가 소개되고 있으며, 또한 각 작품마다 선명한 색채를 관찰할 수 있어 색채를 분류하는데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궁수, 불교자수, 생활자수, 복식자수의 네 가지의 카테고리 분류하고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을 제시하는 작품, 총 38점을 선택하였다. 각 작품에서 관찰되는 색상을 한국의 전통적 색채 개념인 오방색(五方色)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각 작품의 색상은 팬톤 컬러(Pantone Solid Color Chips-Third Edition)를 사용하여 좀 더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이는 <한국 전통표준 색명 및 색상>⁶⁾에서 지정한 전통색 색채 표로 색을 분류해 내기에는 색채가 다양하지 않아 미묘한 색상의 차이까지 분류해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전통표준 색명 및 색상>과 더불어 <한국의 색>⁷⁾에서 제시하는 전통색명을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전통색명을 언급한 경우는 위의 두 서적에서의 색명과 가장 흡사한 팬톤 칼라 색상의 번호와 일치시켜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한국 전통색채와 사상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생활 전반에 걸쳐 음양오행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색(色)의 사용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엄격한 위계적, 관념적 질서에

따라 색이 사용되어져 왔으며 이에 따른 특정색의 사용제한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철저히 지켜졌다.⁸⁾ 우리 민족은 서양의 민족들과는 달리 고대로부터 색채를 감각적으로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 관념화된 의미나 상징성으로 인식해 왔다. 비단 우리 민족의 색에서 음양오행사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색'의 기호성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적극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로서의 색'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여러 고증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색을 인식하는 방법이 색상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색조에 따른 색의 느낌이나 색의 이미지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은 더욱 신빙성을 지닌다.⁹⁾

한국의 전통색채는 음양오행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黑)의 오방색(五方色)을 기본색으로 하며, 정색과 정색의 혼합으로 생긴 홍(紅), 벽(碧), 녹(綠), 유황(驪黃), 자(紫)의 다섯 가지 색을 오간색(五間色)이라 하여 이렇게 생긴 10가지 색을 기본색으로 인식하였다. 오행이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를 의미하는데 하늘에는 오운(五運)이 있고, 땅에는 오재(五材), 사람에게는 오성(五愷)이 있어서 모두 오사(五事)가 따르고, 이러한 오행의 요소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입시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음양오행에 따른 오색의 개념은 <표 1>에서 제시한 것처럼 계절, 풍수, 위치, 오상뿐만 아니라 오장, 오관, 미각, 음계 등과도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전통색은 <표 2>에서 제시된 것처럼 각각의 색군별로 다양한 색상의 분포를 나타낸다. 동방청색과 중앙황색의 간색으로서 녹(綠)색, 동방청색과 서방백색의 간색으로 벽(碧)색, 남방적색과 서방백색의 간색으로서 홍(紅)색, 북방흑색과 남방적색의 간색으로서 자(紫)색, 북방흑색과 중앙황색의 간색으로서 유황(驪黃)색을 오간색 또는 오방잡색이라고도 말한다.¹¹⁾ 적색 계열에는 홍색과 자색 계열이 속해 있고 청색 계열에는 벽색과 녹색이, 황색 계열에는 유황색이 포함되어 있다. 오방색 중 적(赤)색은 온화하고 만물이 무성한 남방에 해당되고 태양, 불, 피 등과 같이 생명력이 충만한 색이므로 가장 강렬

〈표 1〉 음양오행사상에 따른 오방색의 개념

	방위	계절	오행	풍수	위치	오상	오장	오관	맛	음
적(赤)	남(南)	하(夏)	화(火, 불)	주작(朱雀)	상(上)	예(禮)	심장	혀	쓴맛	치
청(靑)	동(東)	춘(春)	목(木, 나무)	청룡(靑龍)	좌(左)	인(仁)	간장	눈	신맛	각
황(黃)	중앙(中央)	사계절	토(土, 흙)			신(信)	비장	몸	단맛	궁
백(白)	서(西)	추(秋)	금(金, 쇠)	백호(白虎)	우(右)	의(義)	폐장	코	매운맛	상
흑(黑)	북(北)	동(冬)	수(水, 물)	현무(玄武)	하(下)	지(知)	신장	귀	짠맛	우

〈표 2〉 오방색과 오간색의 한국 전통 표준색명

오정색	오간색	전통색
적(赤)	홍(紅) 자(紫)	적, 주홍, 주, 담주, 장단, 석간주, 적토, 휴색, 갈색, 추향색, 호박색, 홍색, 육색, 훈색, 선홍, 진홍, 분홍, 진분홍, 금향색, 연지색, 연분홍, 흑홍, 자, 자주, 보라, 홍랍, 포도, 청자, 벽자, 회보라, 담자, 다자, 적자
청(靑)	벽(碧) 녹(綠)	청, 벽색, 천정색, 담청색, 취랍색, 양랍색, 벽청색, 청현색, 감색, 남색, 연랍색, 벽랍색, 숙랍색, 군청색, 녹색, 명록색, 유록색, 유청색, 연두색, 춘유록색, 청록색, 진초록색, 초록색, 흑록색, 비색, 옥색, 삼청, 청벽색, 흑청색, 뇌록, 양록, 하엽
황(黃)	유황(驪黃)	담황, 송화, 명황, 황, 치자, 두록, 지황, 유황, 자황, 행황, 토색, 적황, 토황, 자황, 홍황, 금색
백(白)		백색, 설백색, 유백색, 지백색, 소색
흑(黑)		흑색, 회색, 구색, 치색, 연지회색

한 양(陽)의 색으로 인식되었다. 청(靑)색은 하늘과 무성한 식물, 물 등을 상징하는 색으로 해가 떠오르는 동방에 해당되고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인 까닭에 청정한 생명을 상징하며 양기가 왕성한 색으로 간주되었다. 오색의 중심색인 황(黃)색은 우주의 중심에 해당하므로 오색 중 가장 고귀한 색으로 인식되었다. 백(白)색은 빛을 상징하며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은 모두 백색을 신성하게 여겼다. 또한 순결, 청렴 등을 상징하며 우리 민족의 심성과 기질에 부합되어 한민족의 대표색으로 일컬어 졌으며 우리 민족은 백색에서 지고의 미를 발견하였다. 흑(黑)색은 오행 중 수(水)로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스며들기를 좋아하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흑색은 음식으로 태양이 사라진 어두움, 죽음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¹²⁾¹³⁾

2. 한국 전통 자수

한국 자수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싹트기 시작하여 복식에 수를 놓음으로써 비롯되었다. 처음에

는 단순히 천을 꿰매는 바느질에서 시작되었지만 갈수록 장식성이 강하게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자수는 그 성격을 예술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전통자수는 자연의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섬세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독특한 예술로서 우리네 여인들이 낳은 아름다움의 탐구였으며, 여성의 섬세한 감각과 손으로 한 바늘 한 바늘 실을 꿸아 엮은 정성의 예술이다. 이는 예로부터 여자들의 정서생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여자의 단정한 몸가짐과 아름다운 마음가짐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전통자수는 의생활에 아름다움을 불어 넣으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계급의 상하 관계와 실용적인 요구도 내제되어 있었다.¹⁴⁾

삼국 시대는 한국 전통자수의 생성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경우, 천마총에서 출토된 유물 중 옷단에 금실로 수를 놓은 흔적이 남아 있으며, 고구려의 경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쯤에 그린 것으로 짐작되는 고분 감신총의 벽화의 인물이 입고 있는 옷의 문양에서 그 당시 자수 문화를 짐작

할 수 있다. 삼국 중 예술적인 면에서 가장 뛰어난 백제의 경우 전해지는 것은 없으나, <삼국사기 고이왕조>에 '백제의 풍속으로 오월 초 길일에 자주빛의 소매, 넓은 포를 입고, 푸른빛 바지에 금빛으로 꽃과 새 모양의 수를 놓은 관을 쓰고...'라는 기록이 있다. 통일신라의 경우는 불교문화가 융성했고, 이에 따라 자연히 불교자수가 번창했다. 이 시대의 자수는 범위가 넓어져 의복을 비롯해 그릇, 부채, 가마, 집안 생활용품에 까지 수를 놓아 꾸미고 치장하기에 이르렀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수가 더욱 번성하여 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사람들의 옷에도 장식으로 수를 놓는 일이 흔하였다. 고려시대 자수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실용 자수와 더불어 오로지 감상을 하기 위한 자수 작품인 수도(繡圖)이다. 이 수도는 일종의 실내 장식용품으로 붉은 바탕에 녹색으로 선을 두르고 짐승, 새, 과일, 대나무 같은 것을 수놓아 정교하게 만든 작품이다.¹⁵⁾

조선 시대 자수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만들던 궁수(宮繡)와 사대부 이하 민간에서 만들던 민수(民繡)로 구분된다. 조선시대의 궁수는 민가에서 보기 힘든 금사, 은사 및 여러 가지 염색사 등을 이용하여 세련된 자수 작품을 만들어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襟)와 흉배(胸背)는 왕과 왕족 및 문무 관원에게, 각기 신분에 따라 다른 무늬를 수놓았고, 수방에서는 전문적으로 궁궐에서 필요한 수용품을 제작 하였다.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민수는 궁수처럼 세련되지 못했어도 나름대로의 미의식이 담긴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현전하는 자수 작품은 대개가 조선 시대의 작품이고 특히 후기의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자수가 조선시대에 폭 넓게 유행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전통 자수는 조선 시대 후기에는 민화의 영향을 받아 주제가 대담하여 익살스럽고 자유스럽게 표현되었으며 전통자수의 아름다움은 귀족 사회의 것에서보다 서민적인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사소한 생활용품에서 수를 놓아 의복을 장식하는 것까지 자수의 범주가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 자수는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독특한 예술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¹⁶⁾

자수의 문양은 한민족의 역사와 풍속, 신앙이 담긴 문화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¹⁷⁾ 자수에 쓰인 문양을 살펴보면 대체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연문양, 식물문양, 동물문양, 길상어문양, 기하학적문양, 인물문양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자연문양으로 많이 사용되고 표현된 문양은 학과 소나무, 꽃과 어우러진 새와 나비 등이 있다. 식물문양으로는 당초문, 당화문, 보상화문이 있으며 동물문양으로는 십장생에 드는 학, 사슴, 거북이가 있으며 상상의 동물로는 용과 봉황이 있다. 길상어 문양이란 좋은 뜻을 가진 한자 무늬를 말하는 데, 곧 기쁨, 장수, 복, 부귀, 영화, 강녕 등의 뜻을 한자에 수놓아 인간의 염원을 담았다. 기하학적 문양으로는 떡살문, 문살문, 완자문 등이 의식주 어디에나 사용되었고 자수에서는 주로 물건의 테두리를 두르거나 위, 아래 경계를 나누는 데에 자주 쓰였다. 인물문양에는 미인도, 풍속도, 신선도, 단오도 등이 있다.¹⁸⁾

Ⅲ. 한국 전통 자수의 색채와 배색

본 연구에서는 <박영숙, 허동화 소장 자수 특별전>에서 전시된 작품을 궁수, 불교자수, 생활자수, 복식자수의 네 가지 자수군으로 크게 나누고 대표적인 자수 작품, 총 38점을 선택해 각 작품에서 사용된 자수의 색채를 오방색에 따라 분류하여 사용된 색상과 그에 따른 배색 방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각 작품에서 관찰되는 색채는 CMYK 칼라 시스템에 근거한 팬톤 컬러(Pantone Color-Third Edition)를 사용하여 분류하였으며 사용된 각각의 색상별 칼라 혼합 비율은 참고문헌 부분¹⁹⁾에 제시하였다.

1. 궁수(宮繡)

궁수란 왕실에서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자수이며, 조선시대 궁내에서 왕족의 복식 및 기타 용품에 자수 장식을 전담했던 공방을 수방(繡房)이라 하였다. 민간 자수와 비교하면 수법은 같지만 섬세하며 매

〈표 3〉 궁수 작품과 색채 및 배색

궁수 작품과 배색 기법	자수 작품	색채(오방색)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黑)
1. 고종황제 오조룡보 & 왕비용 오조룡보 (19C) 마이코를 배색		152	348 7492	109	white (백색)	
		1797 1935		122 124		
2. 봉황방보(19C) 마이코를 배색		165	286 316 348 7465	122 124 130	white (백색)	
		219 2685 485 505		gold (금색)		
3. 왕비용 방석(18C) 보색 배색 그라태이션 카마이유		152 1685 173 715	341 384 578 647 7459 7468 7477 7483	110 122 1255 131 134 1365 155 7406	white (백색)	
		179 219 2415 7420		2746 286 320 3435 7492		
4. 귀주머니(19C) 보색 배색		179 219 2415 7420	2746 286 320 3435 7492	122 124 7406 gold (금색)	white (백색)	
		199 226		2747 349 362		
5. 궁수 두루주머니 (19C) 악센트 배색		199 226	2747 349 362	116 gold (금색)	white (백색)	
		144 189 191 199 violet		2766 398 7464		
6. 궁수 약주머니 (19C) 톤 온 톤 배색		144 189 191 199 violet	2766 398 7464	122	white (백색)	
		144 1797 200 219		2746 287 3435 7491 7495		
7. 궁수 구봉배갓보 (19C) 명도 도미넌트		144 1797 200 219	2746 287 3435 7491 7495	7406 gold (금색)	white (백색)	
		152 478 5265 688 715		3308 398 5545 646		
8. 길상도 8괘 명풍 (19C) 토날 배색		152 478 5265 688 715	3308 398 5545 646	720 7405	607	

*색채 번호는 Pantone color¹⁹⁾ 체계를, 배색 용어는 <패션디자인과 색채>²⁰⁾에서 언급된 명칭을 사용.

우 우아한 기품이 있다. 특히 금사를 많이 사용하였고 2울의 금사 징금수²⁹⁾는 민수와 구별되는 특징이다.²¹⁾ 궁수 작품에 사용된 색채 특성과 배색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왕과 왕비의 보, 왕비의 방석을 비롯하여 귀주머니, 두루주머니, 약주머니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주머니류, 베갯모, 병풍 등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표 3>

왕과 왕비의 '오조룡보(五爪龍補)'를 살펴보면 황색 계열의 명황색, 자황색(122, 124), 금사가 기본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왕의 보는 전체적으로 황색을 사용하고 적색(1797)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왕비의 보는 붉은색(1935) 바탕에 용 문양은 금색으로 수놓아져 있으며 그 외에도 구름, 바위 등이 수 놓여 있는데 청자색(2685), 장단색(152), 선홍색(219), 진초록색(348), 연두색(7492)과 백색이 사용되고 있다. 배색은 황색과 붉은색 2가지 색의 배색인 바이코롤(Bicolore)²²⁾²³⁾ 배색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봉황방보(鳳凰方補)'는 대한제국 이후 왕비나 왕세자빈의 예복인 대홍색 원삼에 부착했던 흉배로 주홍색(485) 바탕에 금사로 봉황이 수놓아져 있다. 왕비용 '오조룡보'의 경우와 유사한 색채를 사용하고 있으나 색감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청색계열의 사용이 좀 더 다양해진 경향을 보인다. '왕비용 방석(王妃用 方席)'의 경우는 장단색(152)과 감색(7468) 배색에 봉황, 원앙과 꽃문양이 수 놓여 있다. 이 두 색은 보색 대비를 이루며 이는 일반적으로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 대비이지만 이 작품의 경우는 토날(Tonal) 배색²⁴⁾을 사용하여 차분하고 안정되며 고급스러운 색감을 보여준다. 한 가지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더라도 2~3가지 톤을 사용하여 그라데이션(Gradation) 배색²⁵⁾과 카마이유(Camaieu) 배색²⁶⁾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황색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다양한 주머니에 수를 놓아 화려함과 섬세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귀주머니'의 경우도 담청색(320)과 적자색(7420)의 보색대비 원단을 사용하여 강렬한 색감을 주고 십장생 문양을 수놓아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금사로 징금수를 놓았고 흑색을 제외한 오방색을 고르게 사용하고 있어 색감이 선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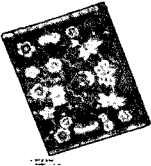







며 화려하다. '궁수 두루주머니'는 적색이 주를 이루지만 녹색계열의 색상인 유록색(362)과 흑록색(349)을 사용하여 화려한 색상의 대비를 주는 악센트(Accent)배색²⁷⁾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색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순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다. '궁수 약주머니'의 경우는 다른 자수 작품에 비해 색상 톤이 열린 경향을 보이는데 홍색(191), 분홍색(189)이 사용되었고 청색 계열의 경우도 춘유록색(398)과 옥색(7464)이 사용되고 있다. 적색과 청색계열의 색상이 전반적으로 열린 경향을 보인다. 동일색상에서 두 가지 톤의 명도차를 비교적 크게 둔 톤 온 톤(Tone on Tone) 배색을 사용하고 있다.

'궁수 구봉베갯모'는 적색(1797)과 청색의 배색을 사용하고 특히 다양한 톤의 녹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색계열의 경우도 적토색(200), 주황색(144), 선홍색(219) 등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길상도 8첩 병풍'은 매첩마다 화분 16개와 4구 4행의 16자로 된 축복을 염원하는 글이 수 놓여 있다. 춘유록색(398)을 바탕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강한 원색을 사용하기 보다는 회색기가 도는 톤이 낮은 색상(5545, 646, 720)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백색계열의 경우도 백색보다는 유백색(607)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차분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 색상 톤이 낮은 토날 배색을 사용하고 있다.

2. 불교자수

불교자수는 불교와 관련된 불구(佛具)등에 사용된 자수로, 부처의 덕을 찬양하고 부처의 힘에 의해 소원성취를 이루려는 염원이 담겨져 있으며 신심이 돈독한 여성 불자나 자수 기량을 습득한 비구니에 의해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자릿수²⁹⁾ 기법 한 가지만 사용하고, 시주를 한 사람과 연대가 표시된 것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³⁰⁾ 불교자수 작품의 예로는 현우경의 표지를 장식한 자수 작품을 비롯하여 방석, 스님의 법의인 수가사(繡袈裟)에 장식된 자수, 부처의 형상을 자수로 표현한 작품, 병풍 등에 사용된 자수의 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표 4〉 불교자수 작품과 색채 및 배색

불교자수 작품과 배색 기법	자수 작품	색채(오방색)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黑)
1. 현우경(15C) 톤 온 톤 <input type="checkbox"/> 토날 배색 <input type="checkbox"/>		153 <input type="checkbox"/> 158 <input type="checkbox"/> 159 <input type="checkbox"/> 717 <input type="checkbox"/> 730 <input type="checkbox"/> 7414 <input type="checkbox"/> 7512 <input type="checkbox"/>	5545 <input type="checkbox"/> 581 <input type="checkbox"/>	156 <input type="checkbox"/>		black (흑색) <input type="checkbox"/>
2. 부처상(19C) 토날 배색 <input type="checkbox"/> 새퍼레이션 <input type="checkbox"/>		152 <input type="checkbox"/> 7413 <input type="checkbox"/> 7414 <input type="checkbox"/>	581 <input type="checkbox"/>	123 <input type="checkbox"/> 1345 <input type="checkbox"/> 7407 <input type="checkbox"/>	7528 <input type="checkbox"/>	black (흑색) <input type="checkbox"/>
3. 불상용 봉황· 연화문 방식 (19C) 보색 배색 <input type="checkbox"/> 악센트 <input type="checkbox"/> 그라데이션 <input type="checkbox"/>		152 <input type="checkbox"/> 165 <input type="checkbox"/> 169 <input type="checkbox"/> 194 <input type="checkbox"/> 219 <input type="checkbox"/> 485 <input type="checkbox"/> 4995 <input type="checkbox"/> 505 <input type="checkbox"/>	371 <input type="checkbox"/> 377 <input type="checkbox"/> 5545 <input type="checkbox"/> 7477 <input type="checkbox"/> 7492 <input type="checkbox"/>	1255 <input type="checkbox"/> 131 <input type="checkbox"/> 7406 <input type="checkbox"/>	white (백색) <input type="checkbox"/>	
4. 수가사(18C) 악센트 배색 <input type="checkbox"/>		7413 <input type="checkbox"/>	5473 <input type="checkbox"/> 5777 <input type="checkbox"/> 581 <input type="checkbox"/> 7461 <input type="checkbox"/>	7408 <input type="checkbox"/> 7508 <input type="checkbox"/>		black (흑색) <input type="checkbox"/>
5. 천수천안 관세음보살(1910) 카마이유 <input type="checkbox"/> 톤 온 톤 <input type="checkbox"/> 악센트 <input type="checkbox"/>		1375 <input type="checkbox"/> 152 <input type="checkbox"/> 157 <input type="checkbox"/> 1685 <input type="checkbox"/> 1775 <input type="checkbox"/> 1785 <input type="checkbox"/> 199 <input type="checkbox"/>	296 <input type="checkbox"/> 301 <input type="checkbox"/> 316 <input type="checkbox"/> 5777 <input type="checkbox"/> 647 <input type="checkbox"/> 7459 <input type="checkbox"/>	117 <input type="checkbox"/> 1225 <input type="checkbox"/> 124 <input type="checkbox"/> gold (금색) <input type="checkbox"/>	7499 <input type="checkbox"/>	black (흑색) <input type="checkbox"/>
6. 31의 수식 토날 배색 <input type="checkbox"/>		166 <input type="checkbox"/> 498 <input type="checkbox"/>	2756 <input type="checkbox"/> 5477 <input type="checkbox"/>	117 <input type="checkbox"/> 124 <input type="checkbox"/> 1265 <input type="checkbox"/> gold (금색) <input type="checkbox"/>	7499 <input type="checkbox"/>	
7. 구운봉도 10첩 병풍(19C) 보색 배색 <input type="checkbox"/> 새퍼레이션 <input type="checkbox"/>		138 <input type="checkbox"/> 1665 <input type="checkbox"/> 221 <input type="checkbox"/> 261 <input type="checkbox"/> 485 <input type="checkbox"/> 7422 <input type="checkbox"/>	105 <input type="checkbox"/> 284 <input type="checkbox"/> 451 <input type="checkbox"/> 541 <input type="checkbox"/> 545 <input type="checkbox"/> 5773 <input type="checkbox"/> 5787 <input type="checkbox"/>	123 <input type="checkbox"/>	7499 <input type="checkbox"/> 7528 <input type="checkbox"/>	black (흑색) <input type="checkbox"/>
8. 사계분경도 4첩 병풍(14C) 토날 배색 <input type="checkbox"/> 보색 배색 <input type="checkbox"/> 톤 온 톤 배색 <input type="checkbox"/>		152 <input type="checkbox"/>	350 <input type="checkbox"/> 5463 <input type="checkbox"/> 5545 <input type="checkbox"/> 625 <input type="checkbox"/>	1205 <input type="checkbox"/> 1255 <input type="checkbox"/> 131 <input type="checkbox"/>	7499 <input type="checkbox"/>	black (흑색) <input type="checkbox"/>

*색채 번호는 Pantone color¹⁹⁾ 체계를, 배색 용어는 <패션디자인과 색채>²⁸⁾에서 언급된 명칭을 사용.

첫 작품인 '현우경(賢愚經)'은 악행을 멀리하고 성행을 권장하여 불법에 귀의하는 인연을 설법한 불경으로 이 책의 표지를 자수로 장식하고 있다. 바탕색은 녹색(5545)이며 자수의 색상은 대부분이 적색 계열이나 강하고 화려한 적색이 아니라 주황기가 가미되거나 검은색이 가미되어 톤이 낮아진 적색을 사용하고 있다. 바탕색과 자수색은 보색계열의 대비를 이루나 모두 색상의 톤이 어두워져서 대비를 이루면서도 중후하고 세련된 색감을 나타내고 있다. 두 가지 톤의 명도차를 이용한 톤 온 톤 배색과 덜 톤(dull tone)을 사용한 토날 배색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연화 위에 앉은 부처님의 형상을 수로 표현한 '부처상'의 경우, 적색계열(152, 7414)과 황색계열(1345, 7407)이 고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회색기가 가미되어 안정적이고 차분한 색감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궁수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흑색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토날 배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불상용 봉황·연화문 방식(佛像用 鳳凰·蓮花紋方席)'은 주홍색(485)과 녹색(5545)을 바탕 원단 색상으로 사용하여 보색대비를 이루어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적색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색계열(505)의 사용도 특징적이다. 청색계열의 경우는 벽색계열보다는 녹색계열이 사용되고 황색계열의 경우는 토색(1255), 토황색(131)과 같이 회색이 가미된 색상이 사용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거의 같은 색에 가까운 색상을 2~3가지 사용한 배색 방법을 사용하여 그라데이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작품은 '수가사(繡袈裟)'로 보물 제 56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스님들의 예복인 법의를 말한다. 황색계열 색상의 사용 분포가 주를 이루지만 부분적으로 청색계열(5473, 5777, 581, 7461)의 색상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주황계열의 색상(7413)과 황색계열의 색상이 주요 색상으로 사용되고 청색 계열과 흑색을 악센트 색상으로 사용한 배색 기법과 한 톤 낮아진 토날 배색을 사용하고 있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은 1910년 제작된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주황기가 있는 적색계열의 색상과 황색계열의 색상이 주를 이루며 밝은 적색(199)과 청색

계열의 색상이 악센트 색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적색계열의 경우는 분홍톤의 색상이 사용되고(1775, 1785), 청색계열의 경우는 다양한 톤의 색상(296, 301, 316, 647, 7459)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문양의 테두리는 금사로 수놓아 화려함을 더한다. 카마이유 배색, 톤 온 톤 배색, 악센트 배색 등 다양한 배색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31의 수식(垂飾)'의 경우는 적, 청, 황색 계열의 색상이 고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된 모든 색상에 회색기가 가미되어 채도가 낮아져 부드럽고 중후한 색감적 특성을 나타낸다. '구운몽도 10첩 병풍'의 경우는 앞의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색감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작품들의 경우 회색기가 가미되어 채도가 낮아진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이번 작품은 흰색이 많이 가미되어 채도가 높아진 특성을 나타낸다. 각 색상 계열에서 한가지씩의 짙은 순색의 색상(485, 541, 123)을 제외하고는 백색이 많이 가미된 색상이 사용되어 부드러운 느낌의 배색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색계열의 색상(221, 261) 사용도 특징적이다. 자색과 황색의 보색 대비와 명도 대비를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마지막 작품은 '사계분경도 4첩 병풍(四季盆景圖 4帖 屏風)'으로 14세기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으며 보물 제 563호로 지정된 작품으로 현존하는 자수품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시기가 오래되어 색감이 선명하지 않지만 배색을 살펴보면 적색계열보다는 청색계열과 황색계열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황계열(152)과 청색계열의 색이 보색 대비를 이루고 있다. 불교자수의 경우 다른 자수 작품들에 비해 채도가 낮은 특성을 나타내며 이는 작품의 색감을 중후하고 세련되게 표현해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 생활용품 자수

생활용품에 수를 장식한 생활자수는 특히 무늬와 빛깔이 우리 전통의 감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³¹⁾ 여자들이 가족들의 안녕과 발복,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생활상 필요한 용품의 장식을 위하여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수저주머니, 귀주머니, 안경주머니, 붓주머니 등과 같이 생활용품을 보관하면서

<표 5> 생활용품자수 작품과 색채 및 배색

생활용품자수 작품과 배색 기법	자수 작품	색채(오방색)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黑)
1. 나비/박쥐 노리개 (19C) 그라데이션 배색		144 485 690	378 647		7528 7499	cool gray 7
2. 어린이용 주머니 (2점, 19C) 세퍼레이션		200 219 274 172 200 218 219 267 485	372 7464 2717 625	1205 1205 1225	white (백색) 7528 white (백색) 7499	
3. 붓주머니 (2점, 19C) 악센트 세퍼레이션 명도 도미넌트		1575 165 194 204 Orange 174	283 7493 2756 384	123 1235 141 109 132	white (백색) 7528 white (백색) 7528	black (흑색) warm gray11
4. 버선보 주머니 (2점, 19C) 악센트 카마이유		1797 218 219 7423	2735 7464 7493 622 653	1205 1205	white (백색) 7499 white (백색) 7528	
5. 뿔개장식 (2점, 19C) 악센트 토날 배색 튼 온 톤 세퍼레이션		159 1765 177 178 208 2597 485 1505 198 2593 7433 7434	288 624 623	1225 gold (금색) 1205 gold (금색)	7499 7499	black (흑색)
6. 수보자기 (19-20C) 악센트 배색		211 485 226	2748 5467 622 7464	1355 gold (금색)	607	
7. 안경집 (19-20C) 카마이유		144 1795 187 260	111	130 gold (금색)	white (백색) 7528	black (흑색) cool gray 7
8. 화조도 10첩 병풍 (19C) 그라데이션 세퍼레이션 토날 배색		144 1807 220 690	3985 3995 622 624 7495	124	7499 7528	

*색채 번호는 Pantone color¹⁹⁾ 체계를, 배색 용어는 <패션디자인과 색채>²⁸⁾에서 언급된 명칭을 사용.

동시에 장식을 겸용하는 것이 있었으며, 사주보, 예단보, 폐백보, 밥상보, 이불보 등 보자기류와 베갯모, 보료, 이불 등 침구용과 약낭, 필낭, 벼룩집 등 매우 다양한 종류들이 제작되었다.³⁰⁾ 생활자수 작품의 경우는 여성들이 사용하던 노리개, 복주머니, 붓주머니, 버선을 만들기 위한 본을 보관하던 버선본주머니, 덮개장식, 수보자기, 안경집과 병풍 등의 색채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자수 작품은 각각의 종류별로 여러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작품 수가 많이 제시된 작품류의 경우 색채의 사용이 다양한 작품을 2점씩을 대표적으로 선택해 사용하였다. <표 5>

생활자수 중 첫 번째 작품 종류는 노리개로 나비 또는 박쥐 노리개, 주렴향노리개, 매미노리개, 복주머니형 노리개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나비, 박쥐 노리개'의 경우 주홍(485)과 주황(144)이 주요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무채색 계열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녹색 계열의 색상과 주황 색감의 대비를 주고 있는데 이 작품 이외에서도 주황과 녹색의 대비를 많이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청색계열의 색상은 회색기가 가미된 톤의 색상을 사용하여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색감을 표현하고 있다.

'어린이용 주머니'의 경우도 총 5점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고 있는 2점을 선택해 색상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작품은 옥색(7464) 바탕색에 적토색(200), 선홍색(219) 등의 적색 계열의 색상과 청색계열의 색상(274)을 사용하여 보색 대비를 주고 있다. 바탕색상은 백색이 가미되고 자수색상은 짙은 색상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자수의 형태를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적색계열은 짙게, 청색계열과 황색계열은 옅게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음 작품은 소색에 가까운 황색계열 색상(1205)의 바탕색에 매화문양이 수 놓여 있다. 주로 적색계열의 색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순색(485, 1225)과 폐일한 색상(218, 2717)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적색계열의 색상은 순도가 높은 색상을 주로 사용하는데 반하여 청색계열의 색상은 백색이 가미된 옅은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적색계열의 색상은 짙게, 그 밖의 색상은 옅은 색상을 사용하여 적색계열의 색상이

강조되는 배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살펴볼 작품은 '붓주머니' 두 점으로, 우선 첫 번째 작품의 경우 적색계열의 색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일한 색상이 많이 사용되고 더불어 청색과 황색계열의 색상도 옅은 색상이 주로 사용되어 부드럽고 소박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다. 흑색을 악센트 색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두 번째 작품은 짙은 청색(2756) 바탕에 주색(Orange), 녹색계열(384), 황색계열(109)이 조화롭게 사용되어 세련된 색감을 준다. 색상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계열별 색상을 강하게 대비시킨 명도 도미넌트 배색 방법을 사용하여 다이내믹한 느낌을 준다.

'버선보 주머니'의 경우 총 7점이 제시되고 그 중 2점의 색채 사용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작품은 적색(1797) 바탕에 폐일한 톤의 적색, 청색, 황색 계열 색상의 자수로 장식되어 있다. 다른 작품의 경우도 회색이 가미된 백색 바탕색에 폐일한 톤의 자수색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악센트 색상을 사용하여 문양의 테두리 장식을 하고 있어 형태의 선명함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두 작품 모두 짙고 강한 색상보다는 소프트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바탕색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자수에 사용된 색상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매우 다른 색감으로 다가오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갈색톤의 바탕색(159)에 매화자수가 놓여 있는 '덮개장식'의 경우 매화 자수의 색상으로 다양한 홍색계열의 색상(1765, 177)이 사용되고 나뭇가지의 경우는 마치 색동의 느낌을 주는 색상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작품의 경우 부분 부분에 명도가 높은 색상으로 악센트를 주고 있는 특징을 보이며 꽃은 톤이 낮은 색상을 사용한 토날 배색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덮개 장식 작품의 경우는 자색계열의 색상(7433)이 바탕색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색감의 자색계열의 색상(2593, 7434)과 적색계열(1505, 198)이 자수의 색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는 자색 계열의 색상끼리의 톤 온 톤 배색법을 사용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금사로 문양의 테두리를 장식하고 있다. '수보자기'의 경우 바탕색은 주홍

색(485)의 강한 색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수의 색상은 적색계열의 경우 흰색이 가미된 폐일한 톤의 색상과 청색계열의 색상 중 짙은 색상(2748, 5467)을 사용하여 적색과 대비를 주는 효과를 주고 짙은 청색 계열의 색상으로 악센트를 주고 있다.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단조로운 색감을 사용하고 있는 안경집의 경우는 백색 바탕에 흑색으로 길상어문을 수놓았으며 자수의 색상은 적색계열과 녹색계열이 사용되고 있다. 다른 안경집의 경우도 많은 색상을 사용하기 보다는 2~3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카마이유 배색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 작품은 '화조도 10첩 병풍(花鳥圖 10帖 屏風)'으로 혼례용으로 사용되던 병풍이다. 적색 계열은 자색이 첨가된 색상(1807, 220, 690)과 주황색(144)이 사용되고 있으며 청색계열의 경우는 흰색 또는 회색이 가미된 색상이 사용되어 차분하고 안정적인 색감을 준다. 특히 혼례와 같은 특별한 날에만 사용되던 자색(690)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세련되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준다. 적색계열의 경우는 그라데이션 배색을 청색 계열의 경우는 토날 배색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4. 복식자수

복식자수의 경우 왕족을 비롯한 지배계층이 입는 공복이나 예복으로 된 궁중복식과 재래의 전통의상에서 비롯된 일반복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수나 금박으로 치장을 하기는 궁중복식이 단연 앞선다. 복식자수는 옷의 소재가 되는 옷감에 직접 수를 놓거나 수놓은 천을 옷에 붙이거나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종류에는 활옷, 원삼, 보와 흉배 등이 있고 그 외에 어린이용 두루마기, 돌피, 꽃버선, 꽃신, 굴레 등 돌장이 수문과 신부의 활옷, 신랑예복의 흉배, 화관 족두리 등 여러 가지 혼례용 예장품이 있다.³³⁾ <박영숙, 허동화 소장 자수 특별전>에 제시된 복식자수 작품의 예로는 어린이용이주를 이룬다. 색동 저고리, 조끼, 배자를 비롯해 장식용품으로 타래버선, 토시, 굴레의 자수 장식을 살펴보고 더불어 여성의 활옷과 조바위의 자수 색

채를 분석해 보았다. <표 6>

첫 번째 작품은 어린이용 '색동저고리'로 복식 색상의 경우 몸판은 춘유록색(398)이고 소매는 색동으로 이뤄져 있다. 색동에 사용된 색상은 적색계열로는 172, 1797, 232, violet이, 청색계열로는 362, 384와 황색(130), 백색이 사용되고 있다. 자수의 색상은 색동의 색상보다 다소 옅은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복식의 경우는 명도 도미넌트 배색 방법이며, 자수의 경우는 토날 배색이 사용되고 있다.

공주나 왕주의 혼례복이었던 활옷(華衣)은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일반인들도 착용하였다. 복식의 색상은 주홍색(485)과 진한 청색(2728)이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소매 부분에는 자황색(124)이 색동 줄무늬 형태로 첨가되어 있다. 활옷은 세 가지 색상이 사용된 트리콜로 배색(Tricolore)³⁴⁾과 명도 도미넌트 배색³⁵⁾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수의 경우는 흰색이 가미된 옅은 색상(157, 223, 7492)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연두색(7492)과 자황색(124)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수의 경우는 그라데이션 배색, 톤 온 톤 배색³⁶⁾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남아 조끼'의 경우 복식의 색상(485)과 자수의 색상으로 짙은 청색(2756)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옅은 색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꽃 자수의 경우는 한 가지 색상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2~3 가지 다른 색을 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선홍색(219)과 청색계열 색상(2756)을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한 악센트 배색과 동색계의 농담 배색인 톤 온 톤 배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어린이용 '배자'의 경우는 앞부분 꽃문양은 옅은 색의 배색으로 이뤄져 있는 반면 뒤는 흑색과 백색의 대비를 비롯하여 짙은 톤의 적, 청, 황색을 배합시켜 강렬한 색감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흑색의 사용이 다른 작품에 비해 많이 보인다.

어린이용 '타래버선'의 경우 흰색 바탕에 버선코 부분에 수를 놓고 방울을 달아 주었으며 발목 부분에 끈은 장단색(152) 원단이 사용되었다. 코 부분의 방울은 좀 더 짙은 색상(173)을 사용하고 있고 자수의 색상은 홍색(226)과 짙은 청색(2745)의 대비를 비롯하여 옅은 색상끼리의 대비 등 다양한 대비

<표 6> 복식자수 작품과 색채 및 배색

복식자수 작품과 배색 기법	자수 작품	색채(오방색)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黑)
1. 어린이용 색동저고리(20C) 명도 도미넌트 세퍼레이션 토날 배색		172 1797 232 violet	362 384 398 623 645	130	white (백색)	black (흑색)
2. 환옷(19C) 트리코폴 명도 도미넌트 그라데이션 톤 온 톤		157 186 219 223 2665 485	2728 2746 623 645 7492	124 gold (금색)	white (백색)	
3. 남아 조끼(20C) 악센트 그라데이션 톤 온 톤		160 217 219 2415 485 688	2756 329 372 390	108	white (백색)	
4. 어린이용 배자 토날 배색 악센트 배색 명도 도미넌트		144 179 185 211	2728 385 623	129 131 gold (금색)	white (백색)	black (흑색)
5. 타래버선(19C) 명도 도미넌트		152 173 226	2745 7492	148	white (백색)	
6. 어린이용 토시 (2점, 19C) 세퍼레이션 카마이유 보색 배색		165 209 219 485 200 224 225	288 625 288 348 362 457	129 130		
7. 조마위(20C) 명도 도미넌트 배색		153 184 192 2617 485	457 625	130 721		black (흑색)
8. 굴레(19C) 명도 도미넌트 카마이유 톤 온 톤		1665 1797 185 214 217 225 485 687	2745 369 574 7464 7492	129 130	white (백색) 607	black (흑색)

*색채 번호는 Pantone color¹⁹⁾ 체계를, 배색 용어는 <패션디자인과 색채>²⁸⁾에서 언급된 명칭을 사용.

효과를 주고 있다. 어린이용 '토시' 2점의 경우 첫 번째 토시의 경우는 주홍(485) 바탕에 색동의 느낌으로 수가 놓여 있으며 세퍼레이션 배색 기법³⁷⁾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작품은 녹색계열 색상(457) 바탕에 같은 톤끼리 또는 대비되는 색상의 배합 등 2~3가지 색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카마이유 배색 기법 또는 보색 배색을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바탕의 색상과의 차이를 주기 위해 녹색계열의 색상이 다른 작품에 비해 다소 짙어진 경향을 나타낸다. 즉 바탕의 색상이 짙은 경우 자수의 색상은 옅은 색을 사용하고 바탕색상이 옅은 경우 자수의 색상은 짙은 색상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성들의 겨울용 모자인 '조바위'의 경우 흑색 바탕에 모란꽃이 수 놓여 있다. 꽃의 색상은 적색계열의 색상(192, 485)과 황색계열의 색상(130, 721)이 배색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흑색 바탕을 사용하고 있어 자수의 색상이 더욱 부각되어 나타난다. 마지막 작품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던 '굴레'로 원단의 색상으로는 주홍(485), 짙은 청색(2745), 녹색계열(369)의 색상과 흑색이 사용되고 있다. 자수의 색상은 주로 적색계열의 색상이 사용되어 화려하며 청색계열이 색상은 연두색(7492), 옥색(7464)과 같은 옅은 색상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굴레 자체의 색상은 순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하고 자수의 경우는 카마이유 배색과 톤 온 톤 배색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V. 결론

자수 분류군에 따른 색채 사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궁수의 경우, 적, 청, 황색 계열 모두 순도가 높은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을 전달한다. 금사와 순도가 높은 황색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한 작품 당 사용된 색상의 가짓수가 많다. 불교자수의 적색계열 경우는 회색기가 가미된 주황, 주홍류의 색상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청색계열의 경우도 녹색계열의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황색계열은 다른 자수군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

양한 톤의 황색 색상이 사용되고 있다. 다른 자수군에 비해 회색이 가미된 톤이 낮아진 색상들이 주로 사용되어 온화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생활용품 자수의 경우는 적색 계열은 순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하는 반면 청색과 황색 계열의 경우는 흰색 또는 회색이 가미된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자색계열의 색상과 옥색(7464)의 사용이 특징적이며 백색계열의 경우 순백색과 더불어 소색, 지백색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흑색계열의 경우도 흑색을 비롯해 치색, 회색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복식자수의 경우 다른 자수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색감이 밝아진 특징을 보이며 주홍색과 홍색계열의 색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적색과 청색계열의 색상이 고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청색계열의 경우 다양한 색의 분포를 나타낸다. 또한 바탕색상과 자수 색상은 채도면에서 대비를 주고 있다.

선호색의 경향을 살펴보면 적색계열의 경우 주홍색(485), 선홍색(219), 장단색(152)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선홍색(219)은 불교자수를 제외한 모든 자수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홍색(485)은 생활자수와 복식자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장단색(152)의 경우도 궁수와 불교자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색계열의 경우는 생활용품 자수를 제외한 다른 자수군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색 빛깔의 염료가 비싸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청색계열의 경우는 모든 자수군에서 공통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색상은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다양한 톤과 미묘한 색감의 차이 때문이다. 청색계열 중에서도 벽색군의 경우는 짙은 청색이 많이 사용된 반면 녹색군의 경우는 진초록(348)에서부터 연두(7492)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색상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청색을 선호하고 애용한 결과이며 또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색상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황색계열의 경우 황제의 색이라 하여 일반인들은 사용을 금지했던 것으로 여겼으나 자수의 경우는 금색을 비롯하여 순색의 황색부터 흰색 또는 회색이 가미된 다양한 황색의 사용을 관찰할 수 있다. 무채색의 사용에서는 백색

〈표 7〉 자수 작품의 색채와 배색 비교·분석

	공수	불교자수	생활자수	복식자수
작품				
대표적 색상	적 (赤)	적 (赤)	적 (赤)	적 (赤)
	청 (靑)	청 (靑)	청 (靑)	청 (靑)
	황 (黃)	황 (黃)	황 (黃)	황 (黃)
	백 (白) 흑 (黑)	백 (白) 흑 (黑)	백 (白) 흑 (黑)	백 (白) 흑 (黑)
	배색	토날 톤 온 톤 보색 바이코를 카마이유	토날 톤 온 톤 세퍼레이션 보색 카마이유 그라데이션 악센트	세퍼레이션 카마이유 악센트 톤 온 톤 토날 그라데이션
특징	*금사를 비롯한 황색계열의 색상을 많이 사용 *적색, 황색, 청색계열의 경우 순도가 높은 짙은 색상을 사용 *화려한 배색 *흑색계열을 사용하지 않음 *작품 당 사용된 색상의 가짓수가 많음	*채도가 낮은 색상을 주로 사용 *채도가 낮은 녹색 계열의 색상이 많이 사용 *다양한 톤의 황색계열의 색상을 많이 사용 *순백색보다 소색과 지백색을 사용 *흑색의 사용이 두드러짐	*적색계열이 타 색상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사용 *청색계열의 경우는 흰색 또는 회색이 가미된 색상이 주로 사용 *황색계열의 경우는 순도 높은 색상보다는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 *다양한 백색, 흑색 계열의 색상이 사용	*적색보다는 주홍색과 홍색 계열의 색상이 많이 사용 *녹색계열의 색상이 많이 사용 *바탕 색상과 자수 색상은 채도면에서 대비를 줌 *원단의 색상으로 흑색을 사용

*3회 이상 사용된 색상에 밑줄 표시.

의 경우 순백색뿐만 아니라 소색과 지백색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생활자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흑색의 경우 궁수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배색 경향을 살펴보면 궁수의 경우, 명도차를 주는 톤 온 톤 배색 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보색대비와 바이코를 배색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궁수의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을 강조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반면에 불교자수 작품은 중명도와 중채도 색상을 사용한 토날 배색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불어 톤 온 톤 배색을 가미하고 있다. 이는 불교자수 작품의 온화하고도 중후한 느낌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배색 기법으로 궁수의 경우와 대조적인 색감을 전달하고 있다. 생활자수의 경우는 세퍼레이션 배색과 악센트 배색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서민들의 색감에 대한 해학적이고 독창적인 발상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 화려한 색상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한, 두 가지 색으로 강조와 대비를 주어 개성이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복식자수의 경우, 타 자수 군에 비해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배색 기법에서도 다양한 배색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복식의 화려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연구 시 문제점으로는, 우선 <한국 전통표준 색명 및 색상>에서 지정한 색채표로 색을 분류해 내기에는 기준이 되는 색채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팬톤 칼라를 기준으로 분류하다 보니 한국 전통색명과 일치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청색계열의 경우는 색상의 톤이 다양하여 전통색 이름을 적용시키기에 무리가 따랐다. 적색계열의 주황색과 황색계열 색상의 구분 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인쇄된 책을 통한 자료로 분류한 결과 원색과의 차이를 배제할 수 없었다. 색상에서의 미묘한 색감과 톤의 차이는 최대한 팬톤 칼라와 일치하도록 선정하였고 이로 인해 모든 색상을 전통색 이름과 일치시킬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전통색에 대한 분류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며 좀 더 세분화된 작업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전통색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현대 문화 상품을 위한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배한나 (2003). 선호색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색채감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박진수 (2000). 한국 전통색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실증적 배색방법에 관한 연구-감성언어에 따른 배색방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2.
- 3) 한영화 (1994). 전통자수. 대원사. pp. 70-71.
- 4) 허동화 (2004). 황홀한 우리 자수-실로 짠 꿈. 경기도 박물관.
- 5) 1946년 11월 설립. 박물관학을 비롯해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계된 학문들을 진작시키기 위해 설립된. 박물관과 박물관 전문직인들의 국제 비정부기구로서 UNESCO와 자문 협력 관계에 있다. 인류문화의 유물, 유적과 환경 자료를 수집, 보존, 전승하며 인류문화와 역사유물을 사회 일반에게 공개하여,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6) 우리나라의 전통 색명에 관한 표준화 작업은 1991년 자문위원이 구성되었고 그 해 <한국 전통표준 색명 및 색상>이 발표되었다.
- 7) 이재만 (2005). 한국의 색. 일진사.
- 8) 배한나 (2003). 앞의 논문, p. 148.
- 9) 배한나 (2003). 앞의 논문.
- 10) 허용득 (1989).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서울: 명지출판사. p. 45.
- 11) 국립현대미술관 (1991).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p. 13.
- 12) 박옥련, 조윤정 (2001) 한국 색동의 색채미가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현상.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문화전통 논문, 제9호, pp. 153-169.
- 13) 박영원 (1997).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미의식을 배경으로 한 한국적 색채에 관한 연구. 청예논총, 12, pp. 59-63.
- 14) 김남일 (2000). 한국 고유의 색채분석 연구-조선시대 전통 자수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7.
- 15) 남상임 (1995). 한국자수. 예맥사.
- 16) 김남일 (2000). 앞의 논문, p. 4-8.
- 17) 정선화 (2002). 앞의 논문, p. 11.
- 18) 김남일 (2000). 앞의 논문, pp. 18-19.

19) Pantone Color Formula Guide

	적(赤)	황(黃)	청(靑)
색상 변호를 CMYK 혼합 비율	138(y-86.2/w.r-12.3/b-1.5)	105(y-80/b-20)	108(y-49.6/w.r-0.8/tr.wt-49.6)
	1375(y-81.3/w.r-18.7)	111(y-92.8/w.r-1.4/b-5.8)	109(y-98.5/w.r-1.5)
	144(y-87.5/rub.r-12.5)	2735(v-75/pr.bu-25)	110(y-97/w.r-1.5/b-1.5)
	152(y-73.9/w.r-24.6/b-1.5)	2745(v-72.7/pr.bu-24.3/b-3)	116(y-97/w.r-3)
	153(y-70.6/w.r-23.5/b-5.9)	2746(v-48.5/re.bu-48.5/b-3)	117(y-94.2/w.r-2.9/b-2.9)
	1505(or.021-50/tr.wt-50)	2756(v-44.4/re.bu-44.4/b-11.2)	122(y-46.9/w.r-3.1/tr.wt-50)
	157(y-37.5/rub.r-12.5/tr.wt-50)	2766(v-40/re.bu-40/b-20)	123(y-93.8/w.r-6.2)
	158(y-75/rub.r-25)	2717(bu072-6.2/tr.wt-93.8)	124(y-92.3/w.r-6.2/b-1.5)
	159(y-73.9/rub.r-24.6/b-1.5)	2747(bu-94.1/b-5.9)	1205(y-5.7/w.r-0.6/tr.wt-93.6)
	160(y-70.6/rub.r-23.5/b-5.9)	2728(re.bu-37.5/v-12.5/tr.wt-50)	1225(y-45.3/w.r-4.7/tr.wt-50)
	1575(y-28.1/w.r-21.9/tr.wt-50)	2748(re.bu-70.6/v-23.5/b-5.9)	1235(y-90.6/w.r-9.4)
	165(y-50/w.r-50)	283(re.bu-4.7/pr.bu-1.6/tr.wt-93.7)	1255(y-80.6/w.r-8.3/b-11.1)
	166(y-49.2/w.r-49.2/b-1.6)	284(re.bu-9.4/pr.bu-3.1/tr.wt-87.5)	1265(y-72.5/w.r-7.5/b-20)
	1665(w.r-61.6/y-36.9/b-1.5)	286(re.bu-75/pr.bu-25)	129(y-46.9/rub.r-3.1/tr.wt-50)
	1685(w.r-52.6/y-31.6/b-15.8)	287(re.bu-72.7/pr.bu-24.3/b-3)	130(y-93.8/rub.r-6.2)
	169(w.r-4.7/y-1.6/tr.wt-93.7)	288(re.bu-70.6/pr.bu-23.5/b-5.9)	131(y-92.3/rub.r-6.2/b-1.5)
	172(w.r-75/y-25)	296(re.bu-36.4/pr.bu-36.4/b-27.2)	132(y-88.2/rub.r-5.9/b-5.9)
	173(w.r-72.7/y-24.3/b-3)	301(pr.bu-78.8/re.bu-18.2/b-3)	134(y-5.5/w.r-0.8/tr.wt-93.7)
	174(w.r-66.7/y-22.2/b-11.1)	316(pr.bu-65/g-15/b-20)	1345(y-7.4/w.r-1.7/tr.wt-90.9)
	177(w.r-25/tr.wt-75)	320(pr.bu-50/g-50)	1355(y-14.8/w.r-3.4/tr.wt-81.8)
	1765(w.r-10.9/rub.r-1.6/tr.wt-87.5)	329(pr.bu-82.3/y-11.8/b-5.9)	1365(y-32.5/w.r-7.5/tr.wt-60)
	178(w.r-50/tr.wt-50)	3308(pr.bu-61.9/y-14.3/b-23.8)	141(y-10.9/rub.r-1.6/tr.wt-87.5)
	179(w.r-98.5/b-1.5)	341(pr.bu-70.6/y-23.5/b-5.9)	148(y-4.7/w.r-1.6/tr.wt-93.7)
	1775(w.r-21.9/rub.r-3.1/tr.wt-75)	3435(g-75/y-5/b-20)	155(y-2.3/rub.r-0.8/tr.wt-96.9)
	1785(w.r-43.8/rub.r-6.2/tr.wt-50)	348(pr.bu-60.6/y-36.4/b-3)	156(y-9.4/rub.r-3.1/tr.wt-87.5)
	1795(w.r-86.2/rub.r-12.3/b-1.5)	349(pr.bu-55.6/y-33.3/b-11.1)	720(or021-2.6/b-0.5/tr.wt-96.9)
	1797(r032-98.5/b-1.5)	350(pr.bu-45.4/y-27.3/b-27.3)	721(or021-5.3/b-1/tr.wt-93.7)
	1807(r032-94.1/b-5.9)	362(y-60.6/pr.bu-36.4/b-3)	7405(y-97.7/w.r-1.5/b-0.8)
	184(w.r-37.5/rub.r-12.5/tr.wt-50)	369(y-73.9/pr.bu-24.6/b-1.5)	7406(y-76.8/w.r-2.4/b-0.8/tr.wt-20)
	185(w.r-75/rub.r-25)	371(y-60/pr.bu-20/b-20)	7407(y-18/w.r-4.2/b-2.8/tr.wt-75)
	186(w.r-73.9/rub.r-24.6/b-1.5)	372(y-4.7/g-1.6/tr.wt-93.7)	7408(y-93.5/w.r-5.8/b-0.7)
	187(w.r-70.6/rub.r-23.5/b-5.9)	377(y-70.6/g-23.5/b-5.9)	7508(y-4.2/w.r-1.4/b-0.7/tr.wt-93.7)
	189(w.r-7.8/rub.r-4.7/tr.wt-87.5)	378(y-60/g-20/b-20)	gold
	191(w.r-31.3/rub.r-18.7/tr.wt-50)	384(y-88.2/pr.bu-5.9/b-5.9)	
	192(w.r-62.5/rub.r-37.5)	385(y-75/pr.bu-5/b-20)	
	194(w.r-55.6/rub.r-33.3/b-11.1)	390(y-92.3/g-6.2/b-1.5)	
	1935(w.r-49.2/rub.r-49.2/b-1.6)	398(y-94.2/g-2.9/b-2.9)	
	198(rub.r-37.5/y-12.5/tr.wt-50)	3985(y-90.8/pr.bu-0.7/b-8.5)	
	199(rub.r-75/y-25)	3995(y-79.5/pr.bu-0.6/b-19.9)	
	200(rub.r-73.9/y-24.6/b-1.5)	451(rub.r-6.6/pr.bu-6.2/y-12.5/tr.wt-74.7)	
	204(rub.r-21.9/y-3.1/tr.wt-75)	457(w.r-6.3/re.bu-6.2/y-87.5)	
	208(rub.r-77.8/y-11.1/b-11.1)	541(re.bu-87.5/y-12.5)	
	209(rub.r-70/y-10/b-20)	545(re.bu-2.7/y-0.4/tr.wt-96.9)	
	211(rh.r-18.7/w.r-6.3/tr.wt-75)	5463(pr.bu-72.7/b-27.3)	
	214(rh.r-73.9/w.r-24.6/b-1.5)	5473(pr.bu-36.4/b-13.6/tr.wt-50)	
217(rub.r-3.1/tr.wt-96.9)	5467(re.bu-45.4/y-27.3/b-27.3)		
218(rub.r-25/tr.wt-75)	5477(re.bu-22.8/y-13.6/b-13.6/tr.wt-50)		
219(rub.r-50/tr.wt-50)	5545(g-34.1/w.r-2.3/b-13.6/tr.wt-50)		
220(rub.r-97/b-3)	574(y-60/re.bu-20/b-20)		
221(rub.r-94.1/b-5.9)	578(y-9.4/re.bu-3.1/tr.wt-87.5)		
223(rh.r-7.8/rub.r-4.7/tr.wt-87.5)	5773(y-6.8/re.bu-2.3/b-3.4/tr.wt-87.5)		
224(rh.r-15.6/rub.r-9.4/tr.wt-75)	5777(y-6.8/g-2.3/b-3.4/tr.wt-87.5)		
225(rh.r-31.2/rub.r-18.8/tr.wt-50)	5787(y-3.4/g-1.1/b-1.7/tr.wt-93.8)		
226(rh.r-62.5/rub.r-37.5)	581(y-75/re.bu-5/b-20)		
232(rh.r-50/tr.wt-50)	622(g-2.3/b-0.9/tr.wt-96.8)		
2415(rh.r-58.8/p-35.3/b-5.9)	623(g-4.5/b-1.7/tr.wt-93.8)		
260(rub.r-70.6/pr.bu-23.5/b-5.9)	624(g-9.1/b-3.4/tr.wt-87.5)		
261(rub.r-66.7/pr.bu-22.2/b-11.1)	625(g-18.2/b-6.8/tr.wt-75)		
2593(rub.r-50/v-50)	645(re.bu-10/b-2.5/tr.wt-87.5)		
2597(v-68.8/rub.r-31.2)	646(re.bu-20/b-5/tr.wt-75)		
2617(v-64.7/rub.r-29.4/b-5.9)	647(re.bu-40/b-10/tr.wt-50)		
267(p-72.7/re.bu-24.3/b-3)	653(bu072-20/b-5/tr.wt-75)		
2665(v-50/tr.wt-50)	7459(pr.bu-18/re.bu-4.2/b-2.8/tr.wt-75)		
2685(v-97/b-3)	7461(re.bu-8.5/pr.bu-16.5/b-1/tr.wt-74)		
274(rub.r-48.5/re.bu-48.5/b-3)	7464(pr.bu-2.45/y-0.35/b-0.2/tr.wt-97)		
478(rub.r-37.5/re.bu-12.5/y-50)	7465(y-2/pr.bu-10.5/tr.wt-87.5)		
485(y-50/rub.r-50)	7468(pr.bu-36.1/re.bu-8.4/b-5.5/tr.wt-50)		
498(w.r-58.8/g-35.3/b-5.9)	7477(pr.bu-30/rub.r-5/b-15/tr.wt-50)		
4995(w.r-14.8/pr.bu-3.4/b-6.8/tr.wt-75)	7483(y-11.3/g-48.7/b-15/tr.wt-25)		
505(w.r-76.5/re.bu-17.6/b-5.9)	7491(y-30/pr.bu-10/b-10/tr.wt-50)		
5265(v-27.3/pr.bu-9.1/b-13.6/tr.wt-50)	7492(y-10.5/re.bu-2/b-0.5/tr.wt-87)		
687(rh.r-9.1/b-3.4/tr.wt-87.5)	7493(y-7.5/pr.bu-2.5/b-2.5/tr.wt-87.5)		
688(rh.r-18.2/b-6.8/tr.wt-75)	7495(y-32.5/pr.bu-7/b-7/tr.wt-53.5)		
690(rh.r-72.7/b-27.3)			
715(or021-12.1/b-0.4/tr.wt-87.5)			
717(or021-48.5/b-1.5/tr.wt-50)			
730(or021-18.2/b-6.8/tr.wt-75)			
7413(y-37/r-12.3/b-0.7/tr.wt-50)			
7414(or021-49.3/b-6.2/tr.wt-44.5)			
7420(w.r-27/r.r-16.6/b-5.5/tr.wt-50.9)			
7422(r032-1.93/b-0.07/tr.wt-98)			
7423(w.r-13.5/r.r-8.1/b-0.9/tr.wt-77.5)			
7433(rub.r-31.8/y-4.5/b-3.7/tr.wt-60)			
7434(rub.r-38.8/y-5.6/b-5.6/tr.wt-50)			
7512(y-50/w.r-16.7/b-8.3/tr.wt-25)			
orange021			
violet			
		백(白)	
		흑(黑)	
		607(y-1.47/b-0.09/tr.wt-98.44)	
		7499(y-1.3/rub.r-0.2/tr.wt-98.5)	
		7528(b-2.3/or021-0.7/tr.wt-97)	
		white	
		black	
		warm gray 11(b-20.13/r032-1.87/tr.wt-78)	
		cool gray 7(b-5.60/bu072-2.4/tr.wt-92)	

약자: r-red, y-yellow, bu-blue, p-purple, v-violet, b-black, wt-white, w-warm, rub-rubine red, rh-rhod red, re-reflex blue, pr-process blue, tr-trans, or-orange

- 20) 윤곽선을 수놓을 때나 넓은 면을 변화 있고 쉽게 수놓으려 할 때 응용되는 기법. 금사, 음사 등을 윤곽선에 놓고, 다른 실로 0.3~0.5cm 정도의 간격으로 징거 나가며, 또한 마름모꼴이 되도록 실을 건너지르고 교차된 곳을 -자나 +자로 징거서 교정시키기도 한다.
- 21) 허동화 (2004). 앞의 책, p. 18.
- 22) 소재의 바탕색을 베이스로 1가지 색을 무늬색으로 하여 프린트한 것 등으로, 2가지 색의 배색.
- 23) 조필교, 정혜민 (1998). 패션디자인과 색채, pp. 113-134.-배색 용어는 이 책에서 언급된 명칭을 사용함.
- 24) 중명도, 중채도의 중간색계인 덜 톤(duil tone)을 사용한 배색 기법.
- 25) 자연적으로 변해가는 해조적(諧調的)배열을 말하며, 색상수가 많을수록 해조성이 나타난다.
- 26) 거의 같은 색에 가까운 색을 사용한, 얼핏 보면 한 가지 색으로 보일 정도로 미묘한 색 차이의 배색.
- 27) 단조로운 배색에 대조적인 색을 소량 추가함으로써 배색에 초점을 주어, 전체의 상태를 돋보이게 하기위해 사용.
- 28) 조필교, 정혜민 (1998). 앞의 책, pp. 113-134.
- 29) 뿔자리의 결모양을 표현하는 수법으로, 길고 짧은 뿔을 수놓은 후 두 번째 단부터는 긴 뿔의 길이로 수놓아 마지막 은 짧은 뿔의 길이로 마무리한다.
- 30) 허동화 (2004). 앞의 책, p. 46.
- 31) 허동화 (2004). 앞의 책, p. 62.
- 32) 김남일 (2000). 앞의 논문, p. 42.
- 33) 정선화 (2002). 앞의 논문, p. 7.
- 34) 세 가지 색의 배색.
- 35) 전체를 밝은 명도로 갖추거나, 어두운 명도로 갖추거나 하여 지배하는 것으로 각 색상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 36) 동일색상에서 두 가지 톤의 명도차를 비교적 크게 둔 배색.
- 37) 2색 또는 여러 가지 색의 배색에서 그 관계가 애매하기도 하고 대비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 세퍼레이션 칼라를 삽입 하여 조화를 주는 기법.